

정영화 대호테크 대표, 마스크 3000매 기부

경남 창원시(시장 허성무)는 9일 대호테크 정영화 대표이사가 마스크 3000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.

이번에 기부 받은 마스크 3000매는 저소득층 및 노약자에게 우선 전달할 계획이다.

정영화 대표이사는 세계 최초의 유리굴곡장비를 개발해 매년 순이익만 200억원이 넘는 지역의 우량 중견기업인 (주)대호테크를 이끌고 있다.

평소에도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